

경계 허물고, 시대를 넘어선 무한한 공명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3주년 기념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展

전남 대표 수묵부터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들까지 총 3개 섹션 구성...국내·외 28명 작가 36점 선배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는 문장이지만 이는 동·서양의 미적 세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언어 간 모순을 통해 두 문명이 공명하는 에너지를 극대화한 것. 동양과 서양은 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불어오듯 같은 방식으로 결합되면서도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기 바르르작 '아일랜드의 빛'

동·서양 예술의 시각적 차이와 공통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7월7일까지 개관 3주년 특별기념전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남을 대표하는 수묵 작품부터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해외 작가들 작품까지 동서양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크게 3개 섹션으로 구분돼 있다. 1부 '사실과 사의', 2부 '비움과 채움', 3부 '균형과 조화'를 주제로 국내외 작가 28명의 작품 총 36점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 예술가들이 자연을 해석하고 묘사하는 여러 관점을 살펴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서양의 풍경화와 현실 너머 이상의 세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양의 풍경화를 통해 두 문명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연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외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기 바르르, 앙드레 브라질리에를 포함해 한국 작가 유근택, 허달재,

이세현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추상미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그것이 제공하는 무한한 창의성이 특징이다. 2부에서는 여백을 통해 공간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만들어내는 동양의 추상과 기하학적 형태, 색을 조화롭게 배치한 서양의 추상을 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이우환, 이응노, 이강소 등의 작품과 빅토르 바사렐리, 피터헬리, 메리오버링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21세기 동·서양의 문화와 철학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동·서양이 교차하는 지점, 경계를 넘은 하나의 땅, 하나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서 두 문명의 지혜가 융합되고 조화를 이뤄낸다. 3부에서는 두 문명의 철학과 문화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해 낸 작가들 작품을 전시해 동·서양 문화와 역사, 전통과 현대, 장르 간 융합과 조화를 보여준다. 특히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양의 정신적 요소와 현대 기술을 통합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백남준의 작품과 함께 황인기, 로랑 그라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묵 작품과 더불어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며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백남준작 '달은 가장 오래된 TV'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이응노작 '문자추상'



빅토르 바사렐리작 '바-베가'

'틀'을 깬 무대 '판'을 키우다

김주홍과 노름마치 '허튼소리'...25일 북구문화센터

음악적 확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접목된 전통음악 무대가 펼쳐진다.

북구문화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브랜드 공연 시리즈 '콘서트 인 북구' 올해 첫 번째 공연으로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허튼소리 Corea Beats' 공연을 선사한다.

공연 타이틀인 '허튼소리'는 합부로 지껄이는 부정적 의미가 아닌 지속적인 학습과 예술 행위 속 번득이는 영감을 무대 위에서 실현해보는 고뇌와 기행의 과정을 뜻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구음장단을 활용해 새로운 음악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여러 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사물놀이 타악기를 기반으로 창·제작했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노래, 구음장단, 키보드, 베이스 등 선율을 강조한 구성과 쉬운 노랫말을 가미했다. 고려가요 가사를 차용하고 만주 별판을 누렸던 기마민족의 호랑담을 상상하면서 찬란했던 과거를 그리기도 하고, EDM 사운드와 전통음악의 만남을 통해 동시대성을 반영한 도시



김주홍과 노름마치

극악을 구현한다. 자연의 카오스와 질서를 음악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전세계 약 65개국 22여개 도시의 축제와 무대에서 한국음악을 소개함은 물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2014년 유럽 최대 뮤직마켓인 '월드뮤직엑스포(WOMEX)'를 통해 음악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며 관람 연령은 7세 이상이다. 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지각하는 형상, 일루전'

32회 호남조각회전...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호남대 조각 전공자들로 결성된 호남조각회가 오는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제32회 회원전 '지각하는 형상, 일루전(ILLUSION)' 전시를 연다.

전시 주제처럼 지각하는 작용이 반응하는 형상들은 현실처럼 보이더라도 흐릿함에 가깝다면 이는 예술의 본질 속 '일루전'이라 할 수 있다.

입체감과 원근감, 공간감 등 조화를 나타내는 '일루전'은 지각하는 형상을 만나 반응하고 그 내용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새롭고 현대적인 AI, 미디어, 최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동시대 미술 속 조형의 흐름이 어떤 자리에서 재생산되고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전시에는 김광래·김대승·김상욱·김숙빈·김지은·박성문·선명희·양훈섭·



김광래작 '떠나가는 배'

우정호·이병선·정숙경·조성태·천기정·최용석·허서형 15명 작가가 참여한 다.

호남조각회 관계자는 "이번 호남조각회 전시를 통해 조형 작품 속 다양한 형상과 주제로 표현된 메시지와 의미를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시보신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